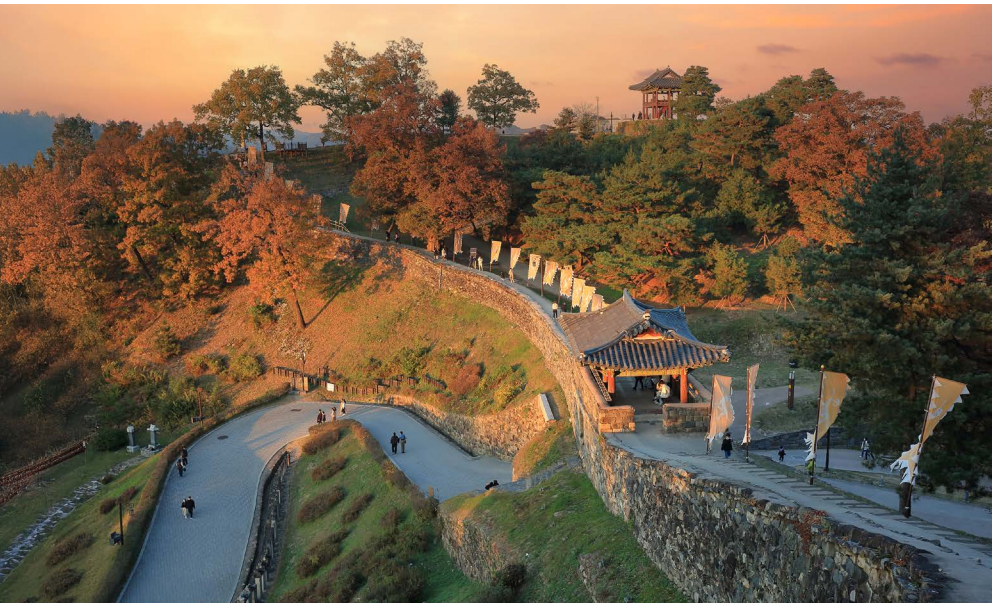


흥미진진 공주

2025년 11월 제36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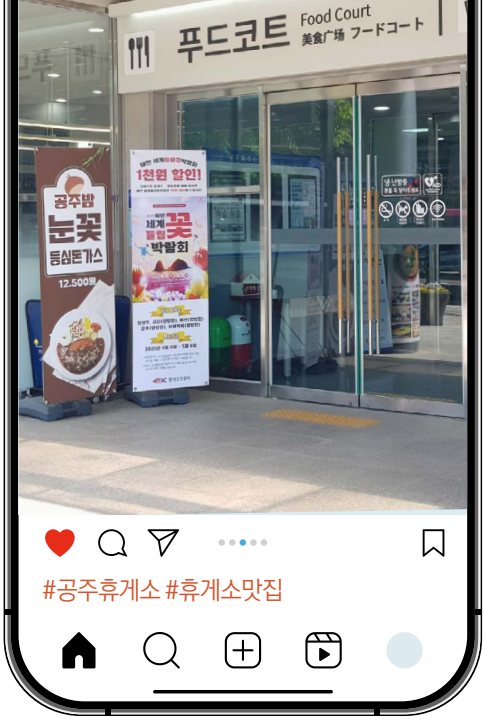




공주시 GONGJU CITY



미디어아트가 빛을 물들이니
공산성의 밤이 또 다른 세상 같네요.
공주는 올 때마다 참 예쁜 도시인 거 같아요ㅎㅎ
독자 @**sorilee**(화성시)



장거리 운전 중 잠시 쉬어가기에
공주휴게소만 한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주시 대표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좋아요
독자 @**jkkang313** (천안시)

#공주역 #연휴마무리
공주역에서 연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며 사진 한장 남겼습니다.
푹 쉬고 나니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겼네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독자 @**hahasungmo**(서울시)

#백제문화제 #소방안전체험장
4살 딸아이와 함께 백제문화제 다녀왔어요~
소방안전체험장에서 집라인도 타보고,
자연스럽게 안전 교육도 해줬답니다.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하루였어요
독자 @**charlotte89**(대전시)





Gongju + SNS

SNS로 만나는 공주의 일상

공주에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
즐거운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사진과 이야기는 편집을 거쳐
다음 호 '흥미진진 공주'에 게재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직접 촬영한 공주시 사진(2MB 이상)과
50자 이내의 사연
※ 상품 발송을 위한 성함, 연락처,
거주 지역도 함께 기입

보내실 곳
dnc-hq04@naver.com

응모기한
11월 12일(수)까지



구독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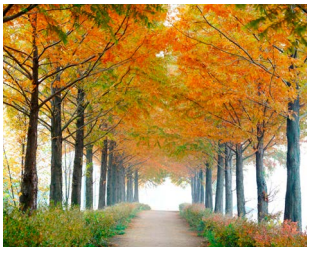
'한양돕집' 기사를 읽으며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칼을 갈러 갔던 기억이 떠올라 반가웠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먹었던 국수 한그릇도 참 그립네요. '골목지킴이' 기사를 볼 때마다 타지생활의 향수병이 조금은 치유되는 기분이라 위로가 됩니다. 건강하세요 사장님.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독자 **@kang7401**(서울시)

KOR 충청남도 공주시 www.gongju.go.kr

04 공주, 늘 새롭게



14 공주, 늘 가깝게



22 공주, 늘 알차게



32 공주, 늘 즐겁게



04 활력도시 공주 ❶
백제로 물든 공주의
모든 순간을 담다

08 활력도시 공주 ❷
함께라서 더 행복했던
'제71회 백제문화제'

10 역사도시 공주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2장_웅진성 소야곡
9화 위기, 벽골제로 몸을 숨기다

12 하트 인 공주
공주시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울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14 시정특집
시민과 함께
공주의 내일을 준비하다

18 여기 어때?
오색빛깔 가을빛이
머무는 공주를 거닐다

20 골목 지킴이
시간을 수놓은 47년
정직한 손끝이 지켜온 한자리
'대일양복점'

22 공주 소식

24 공주 알림

26 시민 기자

28 의회 소식

32 공주 도래미(道來味)
시장 골목에서
만나는 행복한 한입
'달달도넛'

33 문화 캘린더

34 기부 소식

35 튼튼 건강

2025년 11월호
VOL. 368
흥미진진 공주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발행인** 공주시장 **발행처**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편집위원 윤용혁 황교수 유환권 양진모 **제작·디자인** ㈜디앤씨컴퍼니

흥미진진공주 통권 368호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층, 문맹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점자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구독 신청이나 취소, 주소 변경 및 지인 구독 추천에 대한 문의는 홍보미디어실(041-840-84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정 문의 1899-0088 I 041-840-3800

화보로 돌아보는 제71회 The 71st Baekje Cultural Festival 백제문화제 백제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백제로 물든 공주의 모든 순간을 담다

'세계유산 백제, 동탁은잔에 담다'를 주제로 열린 제71회 백제문화제가 10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왕도심 일원은 낮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린 축제의 열기로, 밤에는 빛과 음악으로 채워진 낭만의 시간으로 물들며 백제의 도시 공주를 환하게 밝혔다. 축제를 찾은 7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어 즐긴 제71회 백제문화제, 낮과 밤을 가득 채운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다시 느껴보자.





1. 무령왕의 길
2. 웅진성 퍼레이드
3. 미르섬의 해바라기
4. 웅진백제등불향연
5. 웅진백제 5대왕 추모제

















6. 공주선학리지게놀이
7. 웅진백제별빛정원
8. 웅진성 퍼레이드(무령왕 동상 앞에서)
9. 웅진백제별빛정원
10. 미르섬 꽃정원 전경





11



12

11. 웅진성 퍼레이드
12. 백제 인사이트
13. 백제문화제 폐막식
(자원봉사자와 함께)



13

함께라서 더 행복했던 제77회 백제문화제

찬란한 가을 햇살 아래, 공주시는 웃음과 설렘으로 물들었다. 백제문화제를 즐기기 위해 공주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축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열기로 가득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이웃이 함께 걷고 웃으며 만들어낸 따뜻한 풍경. 그 현장 주인공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친구와 함께

이은영·조유희·서미영 대구시

박창근 가수님이 백제문화제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공주를 찾았어요. 이번이 두번째 방문인데, 예전에는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보러 왔어요. 공주는 올 때마다 역사와 풍경이 어우러져 서정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즐겁게 축제 즐기고 갈게요~ 저희 가수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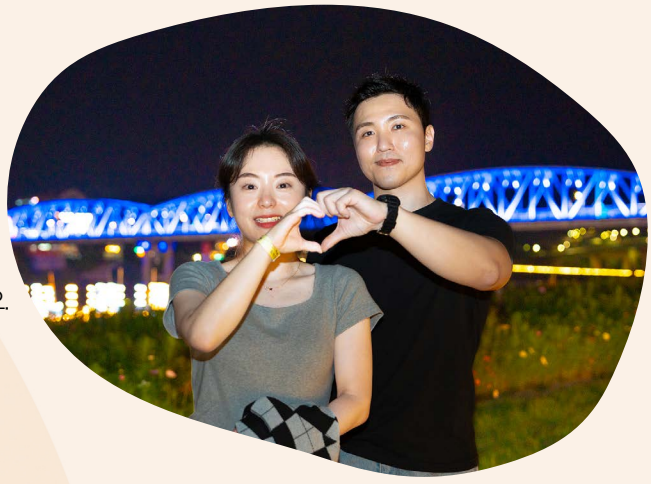
김래후·래아네 가족 공주시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백제문화제에 왔어요. 공주에 살다 보니 해마다 축제를 찾는데, 올수록 즐길 거리가 많아져서 더 풍성한 느낌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4살 쌍둥이도 신나했답니다. 오늘은 공주 출신 '무궁화급 여자천하장사'인 고모와 함께라 더 뜻깊은 추석이에요♡

연인과 함께

장은영·백승찬 천안시·아산시

공주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데이트하러 왔어요! 백제문화제는 처음인데, 주변에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서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산성시장에서 전이랑 떡볶이도 먹고 공산성 산책 중인데, 공주는 알밤막걸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따가 꼭 마셔보려고요 >_<!





가족과 함께

고아루·아린네 가족 화성시

지인이 백제문화제를 추천해줘서 가족들과 놀러 왔어요.
동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당일치기 여행지로 딱 좋더라고요.
분청사기, 향기 주머니, 떡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 다양해서
거의 다 참여해본 거 같아요~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기에도 좋은 축제라
주말 나들이로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이종순·전용봉 부부 세종시

세종으로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공주는 여전히 고향처럼
정겹게 느껴져요^_^ 고마나루연극제, 인당 박동진 추모음악회,
백제문화제 등 공주 축제는 빠짐없이 챙겨다닙니다.
해마다 백제문화제를 오면 축제가 더 발전한 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쉼터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가족과 함께

이지·브라이언 가족 공주시

공주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스러운 두 아이(케이, 다니엘)와 함께
알콩달콩 지내고 있어요. 부모라면 주말마다 아이들과 어딜 갈지
고민되는데, 공주는 계절마다 축제가 많아 행복한 도시예요.
특히 이번 백제문화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론 체험도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된 하루예요♪

친구과 함께

김하은·류수민 대전시·아산시

15년지기 친구와 만나기 위해 중간 지점인 공주에서 보기로 했는데,
마침 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축제라 그런지 더 신나고
새로웠어요. 걸으면서 든 생각 하나는 '공주는 축제에 진심이다!'였습니다.
밤과 관련된 달콤한 디저트와 깊은 역사, 멋진 경관이 어우러진 도시라
MZ세대에게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백제문화제 강추합니다!





무령왕의 62년 생애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2장_웅진성 소야곡

9. 위기, 벽골제로 몸을 숨기다

만화 최 현 정 대본 자료 무령왕국제네트워크

곤지가 내신좌평에 취임하자 누구보다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군사권을 쥐고 있던 병관좌평 해구였어.

문주왕을 허수아비처럼 앞세워 내가 좌지우지 하려 했는데!

화가 난다~ 화가!

이잇

안되겠어! 늦기 전에 어서 곤지를 처단해야겠어!

해구

477년 7월 그믐의 날 밤, 곤지는 해구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어.

촤악~

해구가 보낸 자객들은 곤지를 친 후 사마를 추격했어. 그러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사마는 이미 몸을 피한 후였지.

쥐새끼처럼 빠져나갔구나!

앗

사마가 위험해!!

내친김에 문주왕까지 제거해야겠다!

이제 백제는 이 몸이 접수!

문주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를 틈타 해구는 자객을 보내 왕을 습격했어.

윽~

사마가 몸을 피해 웅진에서 배를 타고 이른 곳은 김제 땅, 벽골군이었어.

아버지... 흑흑

출렁출렁~

해구는 어린 태자 삼근을 왕위에 올렸어. 그리고 왕을 조종하며 모든 권력을 독차지했지. 억지로 왕위에 오른 삼근왕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날의 연속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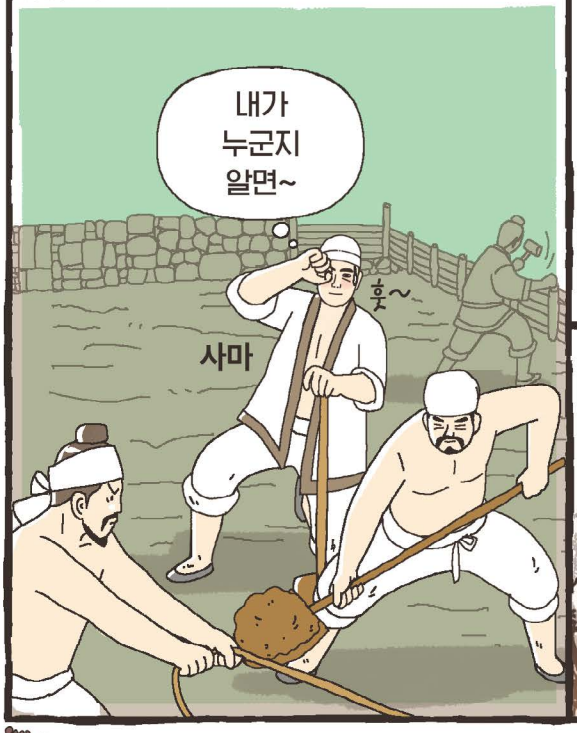
해구와 같이 좌평 벼슬에 있던 진남은 해구의 만행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어.



진남과 진로는 군사 2천 5백을 동원해 해구를 처단했지. 그리고 해구 처자의 목을 웅진 도성 시장에 걸어 상황이 진정되었음을 알렸어.



한편, 벽골군에서는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는 간척 사업이 한창이었는데, 일손이 부족한 탓에 사람들을 아무 데서나 끌어다 노동에 투입하고 있었어.



훗날 무령왕은 벽골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간척과 저수시설 확장에 주력했어. 말하자면, 백제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주력 SOC 사업이었던 셈이지.



벽골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김제라는 곳이야. '벽골' 이라는 이름은 '볏골'. 즉, 쌀농사를 많이 하는 고을을 의미하는 이름이란다.



이 만화는 상상과 픽션을 자유롭게 섞어, 무령왕의 생애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h·well

공주시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울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며, 노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어르신 돌봄까지 이어가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이하 공주지사)는 이 제도가 시민의 일상에서 따뜻하게 이어지도록 힘쓰며,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주임, 최미리 주임, 박은주 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가운데), 김지혜 주임, 노수형 대리

건강한 일생을 책임지는 제도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울타리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상의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고,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공단은 시민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며, 이렇게 모인 보험재정으로 병원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번영2로 58 1577-1000

또한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해 암과 같은 주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재가 서비스나 시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초고령 사회에 맞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히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주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혜택

공주지사는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주시는 인구 10만명 가운데 노인 비율이 32.1%에 이르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노인 세대는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되고, 읍·면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공주지사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독려한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55건, 누적 3,195건의 경감 신청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생활운동, 요가, 스포츠댄스, 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은 신체 활력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돌볼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경로당·마을회관 등 22개소에서 326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주지사나 경로당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든든한 건강 지킴이

우리 사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됐다. 공주지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과 함께 돌봄의 부담을 나누며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공주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뿐 아니라 곁에서 돌보는 가족까지 세심히 살핀다. 정기 상담을 통해 보호자의 고민을 듣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안내하며, 간병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다. 덕분에 지쳐 있던 보호자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요즘 공주지사는 공주시와 협력해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사업'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의료·요양·복지를 한데 아우르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현장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정부와 지역 복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공주지사의 역할은 노인 돌봄에 그치지 않는다. 공주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교육과 지역 의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다. 이밖에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의 성장과 자립을 꾸준히 응원하며 따뜻한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주시민과 함께 평생의 건강을 지켜내며, 앞으로도 진심 어린 소통과 배려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주의 내일을 준비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난 3년, 시민과 함께 쌓아온
변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공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선 8기 76개 공약 중 **47개** 완료 **92.67%**

- 보류 및 폐기 공약사업 '제로'
-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62%) 대비 30% 상회('25. 10. 기준)

-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수상(전국 시 단위 1위)
- 2024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1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 정부 산하 2개 공공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유치, 연 4만명 유입·813억원 지역경제 효과 창출

◆ 생활인구 중심 시책 추진으로 온누리 공주시민 2배 이상 증가(25만 6,507명), 생활인구 충남도 1위 달성(전국 3위)



2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90개 기업·9,735억원 투자 유치 성공, 남공주 산업단지 100% 분양

- 2차전지 제조기업 ㈜덕산테코피아 등 첨단 신성장 기업 10개 유치
-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완공
  - 솔브레인, 바이오니아. 한국서부발전㈜ 등 27개사 3,000여명 입주 계획
- 유구 농공단지 내 통합물류센터 조성 : 400억원 / 25년 중 준공 예정 / 웅진식품㈜, 웅진코웨이㈜

◆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60만원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 1/6로 인하

◆ 드론 실증도시 연속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드론산업 실증 메카 도약

3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 축구장 신설, 게이트볼장 조성, 파크골프장·실내테니스장 확충, 수영장 시민 개방 등 전례 없는 체육복지 인프라 확장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전액 지원, 365일 24시간 운영 아동돌봄 거점센터 지정 및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안심 보육환경 선도



- 청소년 전용시설 대폭 확충, 행복누림 내 청소년수련관, 만화작은도서관, 진로교육센터 등 청소년 맞춤 공간 개관, 중학생 해외체험 추진 등 꿈을 키우는 성장 지원 강화
- 충남 최초 스마트경로당 구축, 치매 예방·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
- 청년센터 및 청년 공유공간(2개소) 운영 지원 등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4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 축제마다 최다 방문기록 경신, 사계절 내내 즐기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실현
  - 제8회 겨울공주 군밤축제&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24만명 방문
  -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5만 4천명 방문
  - 제4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10만명 방문
  - 제1회 공주 夜밤 맥주축제 2.5만명 방문
  - 제71회 백제문화제 70만명 방문
- 공주행복누림, 책공방북아트센터,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마을어울림플랫폼,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백제문화전당 등 품격 있는 시민 생활문화 거점 대거 개관
- 충청권 유일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밤마실 야시장, 국가유산 야행, 캔들라이트, 제민천 밤살롱 등 야간관광 프로그램 실시, 공주문화도시사업(웰컴투 신관동, 이인 벽화마을, 하숙마을) 추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17개소) 운영 등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 밤양갱, 백제술 등 공주 대표제품 발굴로 도시브랜딩 사업 활성화 및 왕도심 1·2·3 코스 개발로 활성화 사업 추진
- 숲자원을 활용한 산림레포츠(네트어드벤처·스카이사이클) 조성 및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착공

공주의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1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01 식품·축산 특화 공공기관 선제 유치,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기반 마련 박차

02 송선·동현지구 7천세대 신도시 조성 본격화,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 육성

- 개발면적 94만㎡, 총 7,114세대 규모 신도시 개발 (~'28. 12. / 5,560억원)

03 1,600억원 규모 재해예방사업 본격 추진으로 배수펌프장·저류지·관로개량 등 기반 확충

- 옥룡동 일원 빗물펌프장, 관로개량, 저류지 등 설치 ('27. 6. / 358억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유구수촌·연암·반촌·가느니) 정비 ('27. / 950억원)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28. / 314억원)

04 주차공간 500면 이상 추가 확보, 도심 진입로·간선도로까지 전방위 교통 인프라 확충

-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타워, 신관 번영로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13개소 536면 조성(~'26. / 214억원)
-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27. 9. / 133억원) 및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확포장(4개 구간 / 690억원 / ~'27.)



2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01 2026년까지 제2금강교 건설 및 공주~세종 BRT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본격 실현

- 제2금강교 : 교량513m / 도로307m / 352억원 / '27. 3.
- 공주~세종 BRT : 공주종합버스터미널~세종 한별동 (세종6-2생활권) / L=18.5km / 218억원 / '26. 6.

02 공주밤 산업기반 구축, 2028 국제박람회 유치로 세계적 브랜드 도약

- 공주알밤산업 진흥계획 수립(~'25. 11.)
- 대한민국 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국제박람회 개최 ('28. / 170억원)

03 스마트 원예단지·사료용 벼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

-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온실단지(3.3ha / 150억원) 및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5ha / 25억원) 조성
- 총체벼 생산 시범단지(일반벼 → 사료용 총체벼) 2개소(계룡면, 우성면) 18ha 조성(~'25. 9.)

KOR 충청남도 공주시 www.gongju.go.kr

3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01 평목 수변캠핑장 조성을 통해 도심 속 자연친화 힐링 공간 확충

- 우성 평목리(금강~유구천 합류점) 일원 캠핑장, 놀이공간 등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27. / 140억원)



02 축구장부터 물놀이장까지 전문·생활 체육시설 전면 확충,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기반 마련

- 쌍신공원 축구·풋살장·그라운드골프장('27. / 134억원), 신관공원 물놀이장 등 조성('27. / 191억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27. 2. / 160억원), 유구복합체육센터('26. 10. / 50억원), 인공암벽 등반경기장('27. 4. / 80억원), 전천후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조성('27. 3. / 105억원)

4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01 웅진백제호텔·융복합 주거단지 등 1,400억원 민간투자 유치로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용을 통해 웅진백제호텔 조성사업(600억원), 충남형 융복합 주거단지 조성(800억원) 등 대규모 사업 민간투자 유치

02 백제문화전당 건립·폐공장 재생 등 문화시설 기반 확충으로 시민·관광객 문화 향유 기회 대폭 확대

- 유구읍 직물 폐공장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 왕도심 문화·예술 허브 1940 문화양조장 조성,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문예회관 리모델링

03 백제문화촌 및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금강 중심 문화관광 벨트 본격 조성

- 백제문화촌 조성(백제왕도생활체험마을, 백제문화스테이, 웅진신화뮤지엄 등 / '30. / 400억원)
- 금강 국가정원 조성 (A=50만㎡, 주제별 정원 5개소 조성 / '28. / 350억원)
-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추진 (황포돛배 및 수륙양용버스 제작 등 / '28. / 80억원)

04 구석기부터 백제·조선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자산 활용으로 명품 역사문화도시 실현

- 세계구석기공원 조성('26. 8. / 220억원), 충청감영 생생마을 개관('25. 10. / 89억원), 공주목 복원 정비('27. / 220억원),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25. 12. / 40억원), 대통사지 역사유적공원 조성('28. / 100억원),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28. / 422억원)



오색빛깔 가을빛이 머무는

공주를 거닐다

높고 맑은 하늘 아래 산들산들 부는 바람, 그리고 흩날리는 낙엽까지.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을의 향기가 스며들고,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금. 가을빛으로 물든 공주에서 마음을 쉬어가는 산책길을 만나보자.



01

잔잔한 물결 위로 번진 가을 풍경

불장골저수지

'불장골저수지는 송곡지, 송곡소류지로도 불리는 작은 저수지지만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생샷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이다. 잔잔한 호수를 따라 한바퀴 산책하기 좋고, 특히 가을이면 청명한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어와 노란 은행나무가 호수 위에 고스란히 비치며 절정을 이룬다. 아침이면 물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햇살이 스며들면 반짝이는 수면 위로 가을빛이 고요히 번진다. 주변에는 잠시 머물러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인근의 상신리 돌담 풍경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은 공주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즐겨 찾고 있다.

반포면 송곡리 산21-6







02

단풍이 물든 고즈넉한 사찰
갑사 오리숲길

'춘마곡 추갑사(春麻谷 秋甲寺)'라는 말처럼 갑사의 가을은 예로부터 단풍 명소로 손꼽혀 왔다. 계룡산 자락이 붉게 물드는 이맘때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숲길이 붐빈다. 천년고찰로 향하는 오리숲길은 이름 그대로 약 오리(2km) 구간에 울창한 나무가 터널을 이뤄 걸을수록 산사의 고요함이 마음을 감싼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바스락거리고, 은은한 솔향이 계절의 향기를 더한다. 특히 11월이면 단풍빛이 가장 고운 시기로, 붉고 노란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자연의 숨결에 마음이 절로 맑아진다. 가을의 끝자락을 오롯이 느끼고 싶다면 갑사 오리숲길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자.

갑사로 567-3

03

다채로운 가을을 흠뻑 머금은
공주 메타세쿼이어길



정안천생태공원에 자리한 메타세쿼이어길은 2011년 조성 이후 시민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공주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다. 약 500m 구간에 늘어선 190여 그루의 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며 걷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초록빛 터널을 이루고 가을이면 붉고 노란 잎이 어우러져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 정안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천천히 걸으며 혹은 바람을 맞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다.

의당면 청룡리 905-1



시간을 수놓은 47년

정직한 손끝이 지켜온 한자리

대일양복점 지귀석 대표

먹자2길 4-1

041-852-2572

중동 먹자골목에 자리한 대일양복점은
1978년 (옛)법원 근처에서 문을 연 뒤
지금까지 공주에서 긴 세월을 이어온 양복점이다.
맞춤 양복의 전성기를 지나 지금은 수선과 리폼으로
새로운 길을 열며, 지귀석 대표의
성실한 손끝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스물네살 청년의 도전, 대일양복점

1955년 서산에서 태어난 지귀석 대표는 다섯살 무렵 공주로 이주해 지금까지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던 그는 목욕탕에서 땔감용 왕겨를 나르고, 이발소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미림양복점에 들어가 처음 바늘과 실을 잡았고,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게에서 밤을 새우며 어렵게 기술을 익혔다.

이후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상경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회의 냉혹함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공주로 내려온 그는 마음을 다잡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그렇게 묵묵히 2년 동안 모은 돈과 외상으로 마련한 도구들로, 스물네살 청년의 첫 가게 '대일양복점'이 탄생했다.

"어릴 때부터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러다 '안되면 말지'라는 젊은 날의 패기 하나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홍보 같은 건 못했지만 정직하게 하면 손님들이 반드시 알아줄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맞춤에서 수선까지, 한결같은 장인정신

지귀석 대표의 성실함과 감각은 곧 손님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체크무늬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만든 바지는 전교생 절반이 입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기성복이 대세가 되면서 공주의 맞춤 양복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는 1997년 지금의 자리로 옮긴 뒤 수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중동 거리는 옷가게가 즐비해 기성복을 산 손님들이 곧장 수선을 맡기곤 했다.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대일양복점의 강점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주변 옷가게는 사라졌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진다. 단순히 기장을 줄이거나 수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의 구조를 이해해 새 옷처럼 되살려내는 '리폼'은 특히 호평을 받는다. 고등학생 시절 처음 찾아와 환갑이 되어도 여전히 수선을 맡기는 손님, 멀리 이사한 뒤에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 심지어는 백화점에서 산 옷을 브랜드 수선집을 두고 꼭 이곳을 찾는 단골까지 다양하다.

"같은 옷이라도 새 옷처럼 다시 태어나는 게 수선의 매력입니다. 새 옷을 사기보다 손때 묻은 옷을 오래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 옷을 더 편안하게, 또 유행에 맞게 고쳐드릴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늘 "나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는 말을 강조한다. 양복점에서 근무하던 시절, 눈을 감고도 바느질하는 장인들이 부러워 수없이 반복하며 기술을 다졌다. 지금도 손 감각을 잃지 않으려 헌 옷으로 가방이나 모자를 만들며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 47년째 이어온 '후불결제' 원칙에도 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 먼저 손님이 수선된 옷을 입어보고 만족해야만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자 손님을 향한 배려였다.

몸이 아파 일을 줄여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는 매일 산을 오르며 건강을 다졌다.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그 꾸준함 덕분이다. 이번 인터뷰 자리에서 "셔츠가 멋지다"는 말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50년 전 직접 만든 옷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셔츠는 그의 한결같은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대일양복점은 제 인생이자 추억입니다. 건강이 닿는 한 늘 바느질을 이어가며, 손님들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로 남고 싶습니다."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 준공



공주시는 백제역사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연결하는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은 공산성, 무령왕릉, 정지산, 고마나루를 잇는 역사문화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백제 문화의 중심 공간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총 76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주요 구간에 수변 평상(데크)과 산책로, 역사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백제유적을 탐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 소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탐방 환경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백제문화이음길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500만명 이상의 방문을 목표로 공주시 역사관광의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백제역사지구의 문화자산을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이음길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2025~2026 충남·공주 방문의 해를 맞아 사계절 내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역사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과 ☎ 041-840-8395

복합문화공간 '마을온(ON)' 개관



공주시는 지난 9월 30일 옛 아카데미극장 자리에 복합문화공간 '마을온(ON)'(마을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을 조성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마을온(ON)'은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근대문화의 상징이자 공주시민의 추억이 깃든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성됐다.

1932년에 건립된 아카데미극장은 1943년 화재로 재건축된 뒤 오랜 기간 공주 도심의 문화생활 중심지로 자리하며 근대문화의 역사성과 시민들의 향수를 담아왔다.

시는 이러한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면부를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철거 후 신축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999㎡)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시설 내부에는 1층 공유상가 '7080 음악다방', 2층 기획전시실, 작은영화관 '1932 공주극장' 등이 마련됐으며, 영화관은 총 50석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공간은 앞으로 중학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이 민간위탁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마을온(ON)이 지역의 복합문화 거점으로서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추억과 향수를 선사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활력과 ☎ 041-840-2352

충남 최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공주시는 충남 최초로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장장애인(심한 장애 등록자)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투석혈관 수술비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비로 구분된다. 투석혈관 수술비는 동정맥루 수술, 카테터 삽입술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연 2회, 회당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장이식 검사비는 사전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식대, 입원비, 약값, 증명서 발급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로장애인과 ☎ 041-840-8865

'365×24어린이집' 보육 사각지대 해소

공주시는 올해 1월부터 '365×24어린이집'을 본격 운영한다. 이는 맞벌이, 교대근로, 야간·주말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해 취약시간대 양육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 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보호자(부모·조부모)의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다. 이용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3,000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예약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키움뜰) 누리집 또는 운영기관인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전화로 가능하며, 야간 돌봄(18시~24시)은 당일 오후 6시까지, 새벽 돌봄(24시~09시)과 주말 돌봄(09시~18시)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365×24 어린이집'은 공주시 월송동 소재 현대4차꼬마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과 ☎ 041-840-8894

'어린이 안전보험' 10월 전격 시행

공주시가 10월부터 충남도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전격 시행했다.

어린이 안전보험은 현재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만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한계를 극복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공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시책으로,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학교폭력 상해, 화상 진단·수술비 등 14가지이며 항목별 보장금액도 다양하다.

특히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애, 부상치료비, 상해수술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에 대해 최대 4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총괄과 ☎ 041-840-2283

2025 공주시 취·창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2025 공주시 취·창업박람회가 오는 11월 4일(화)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취·창업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채용존, 컨설팅존, 창업·홍보존,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구분	주 요 내 용
채용존	[공주시 우수기업 채용관] - 현장 1:1 면접
컨설팅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입사지원 컨설팅] - 취업컨설팅(입사지원서 첨삭 지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안정사업(기업 및 청년 지원 정책)
창업·홍보존	[창업 및 기관 홍보] - 창업 멘토링 - 4차 산업 관련 미래 일자리 체험 - 공공기관 홍보
체험존 (부대행사)	[똑똑한 부대행사 - 무료] - 퍼스널컬러 진단 - 면접 메이크업 - 지문 인·적성 검사 - 이력서 무료 사진 촬영 - 인생네컷 - 건강 지킴

◆ 참여대상 : 진로 탐색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 행사규모 : 관내 우수기업 40여개(직·간접 포함)
◆ 일　　시 : 2025. 11. 4.(화) 14:00~17:00
◆ 장　　소 :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체육관(주차장 무료)
◆ 문　　의 : 공주시일자리센터 ☎ 041-840-8304, 840-8089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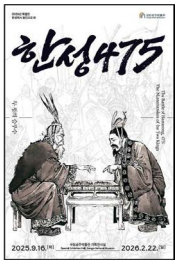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25. 10. 1.(수) ~ 2025. 12. 10.(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주소기준 : 공주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분양권 포함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지원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지급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현금 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 공주시 콜센터 ☎ 041-840-3800
인구정책과 ☎ 041-840-8754

2025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1. ~ 2025. 12.
◆ 지원대상 : 공주시 거주(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
24~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구
◆ 제외대상 : ① 보육료 지원 가정(이용시간 외 가능)
② 가족돌봄과 유사한 시·군 자체사업 이용 가정
③ 해당 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④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신청자 및 수급자 : 신청자 - 부모(양육권자)
육아조력자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친족수급자 - (원칙)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예외적) 부모(양육권자)
◆ 사업기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09~16시),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문　　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



◆ 전 시 명 : 특별전 <한성, 475-두 왕의 승부수>
◆ 전시기간 : 2025. 9. 16.(화) ~ 2026. 2. 22.(일)
◆ 전시장소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내용 :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의 세번째 전시로,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 속 475년 한성 전투를 조명한다. 실제 무기·갑옷 등 450건의 유물에 전략·전술·정책 서사를 더해 입체적으로 구성했으며, 프로젝션 매핑과 투명 디스플레이 등 실감 영상으로 보는 재미를 높였다.
◆ 문 의 : 국립공주박물관 ☎ 041-850-6300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긴급돌봄서비스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한 연계를 통한 양육 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앱 설치 | 안드로이드 | IOS

◆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신청방법 : (신청시간) - 당일 서비스 신청 2시간 전까지
(이용요금) - 서비스별 요금 + 3,000원 추가(건당)
◆ 문 의 : 공주대 교육나눔 ☎ 041-856-0887

스마트 무인도서관 이전 운영

스마트 무인도서관이 기존 공주법원 앞에서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앞'으로 이전해 운영한다.

◆ 위 치 :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앞(신관동244, 탑마트 맞은편)
◆ 이용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대상 : 공주시도서관 회원
◆ 대출권수·기간 : 1인당 5권(공주시 도서관 통합 10권)·14일
◆ 문 의 : 웅진도서관 ☎ 041-840-2205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취약계층·영세사업자 등 비용 문제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 마을 담당 세무사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주민을 연결
- 세무상담(국세 및 지방세)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지역의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 상담 신청

◆ 상담진행
- 1차 상담(비대면) : 전화, 팩스 등으로 상담 진행
- 2차 상담(대면) : 1차 상담 후 필요 시 대면상담 진행

◆ 마을세무사 검색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청 누리집 검색 포털에서 '마을세무사'로 검색
◆ 문의 : 기획감사실 ☎ 041-840-2052

'건강도시 한 컷 챌린지'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대국민 건강도시 인식 제고 및 건강친화환경 체감도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 한 컷 챌린지'를 운영한다.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참여기간 : 2025. 9. 15.(월) ~ 11. 30.(일)
◆ 대 상 : 전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건강도시 한 컷 챌린지' 수행미션(총 12개)을 실천
↓
인증사진 찍기
↓
캠페인 웹페이지 게시판에 실천 인증사진과 소감 게시하기

※ 수행미션은 붙임 포스터 참고(예시 : 금연 및 금주구역 표지판 인증 등)
※ 개인 SNS 계정에 동시 게시하면 당첨 확률 UP! (해시태그 #건강도시 필수)

◆ 경 품 :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5,000원(매월 추첨 60명)
◆ 문 의 : 공주시보건소 ☎ 041-840-3249

배움이 농업을 바꾸다 공주, 미래를 수확하다

권효진(신관동)

오랜 세월 '교육의 도시'로 불려온 공주, 지금 공주시는 농업 현장을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 바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래농업아카데미를 비롯한 혁신적인 농업인 교육이 있다.

공주시 미래농업아카데미는 미래 농업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길러주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AI)으로 농장 로고송을 제작하고, 사업계획서·프레젠테이션 작성, 특허·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실전형 학습으로 농업인을 기획자이자 창업가로 성장시키고 있다.

공주시 농업인 교육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과정은 물론,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스마트강소농·스마트팜 기술, 농업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농업의 전문성과 디지털 소통 역량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농업과 평생학습이 맞물리며 공주는 '학습하는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배움으로 농업을 바꾸고, 교육으로 미래를 수확하는 공주. 그 중심에 '학습하는 시민'이 있다.

공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

이상덕(월송동)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창립 50주년 기념 및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2일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 기관·단체장과 노인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사)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한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를 비롯한 효행자 등 총 48명에게 충남도지사, 공주시장, 공주시의장, 국회의원, (사)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송무경 부시장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으로 터전을 일궈온 덕분"이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제문화제의 숨은 주역! 폐현수막 돗자리 대여

장미옥(신관동)

제71회 백제문화제가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며 7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

백제문화제의 성공 뒤에는 작은 주역이 있다. 바로 '행복한땀 재봉 재능봉사단'이다. 이들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돗자리를 만들어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무료로 대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백제문화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고자 한 공주시의 취지에도 잘 어울렸다. 행복한땀 재봉 재능봉사단은 매주 수·금요일 공주시자원봉사회관에서 수거된 현수막을 소각하지 않고 장바구니, 돗자리 등 생활용품으로 재가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올바른 세상에 대한 염원이 서린 '송장배미'

최풍호(옥룡동)

웅진동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이들의 염원이 서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송장배미'가 있다.

1894년 11월, 우금치와 공주대간 일대에서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끈 동학군 2만여명은 조선군과 일본군 약 1천여명과 맞섰다. 당시 백성들은 세도정치와 매관매직으로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시달렸고, 고부 군수 조병갑의 수탈을 계기로 고부민란이 일어나며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됐다.

공주는 감영이 있던 충청의 중심지로, 동학군에게 식량 확보와 충청도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 전투 연구'에 따르면 우금티, 송장배미 산자락, 오실마을 산자락, 효포 등 4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

진압군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유리한 지형을 선점해 동학군을 일방적으로 공격했다. 본래 '용못'이라 불리던 이곳은 전투 후 동학군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송장배미'라 불리게 됐으며, 하고개와 봉정동의 승주골, 은골, 방축골 등지에서도 그 흔적이 전해진다.









무르익는 가을, 자연과 힐링하기 좋은 명소

길은정(사곡면)

무르익어가는 가을,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좋은 곳이 있다.

공주 고마나루는 공주의 태동지이자 곰과 인간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는 유서 깊은 명승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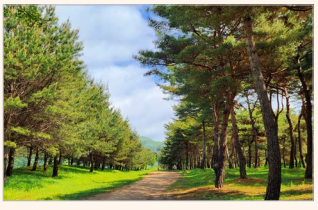
고마나루에는 '곰사당', '금강6경 고마나루 솔밭', '고마나루 전망대'가 있다.

곰사당은 제를 올리는 곳으로 처녀 곰과 나무꾼 총각이 함께 지내다가 나무꾼이 떠나버리자 암곰이 새끼 곰과 금강에 빠져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진다.

금강 나루터에서는 '고마'라는 처녀가 살았는데, 왜군이 쳐들어와 나루터를 지키던 장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다 포로가 되느니 강에 몸을 던져 순절해 이들의 충절과 원혼을 기리기 위해 곰사당을 세웠다고 한다.

금강 6경 중 하나인 고마나루 솔밭길은 소나무와 흙길이 주는 자연에서 쉬어 가기 좋다. 또한, 고마나루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금강은 시원한 바람과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이 아름답다.

역사적 가치와 전설, 소나무 숲길, 반짝이는 금강이 아름다운 '공주 고마나루'를 힐링 장소로 추천한다.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마음 챙김 버스킹'

윤봉중(신관동)

공주시와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 챙김 버스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매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 온·오프라인 캠페인,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근처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행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했다.

마음챙김 버스킹에서는 ▲주간재활 회원의 합창 공연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회원의 커피 제공 ▲자원봉사자·트로트 가수의 노래 공연 ▲시민 참여 노래자랑 ▲떡·커피·경품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신건강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041-852-1094) 또는 누리집(www.gjcmhc.or.kr)을 통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1577-0199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협의회 가을맞이 줍깅!

이양숙(반포면)

가을을 맞아 공주시 귀농귀촌협의회(회장 이영옥) 회원 34명은 금학생태공원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과 산림치유 활동에 동참했다.

가을비 속에서도 회원들은 우산을 쓰고 숲길을 돌며 깨끗한 생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활동 후 산림치유 활동에서는 공원에 상주하는 숲 해설가의 안내로 공원 내 수목의 종류와 생태환경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숲 활동으로는 칡잎을 접어 이빨로 모양을 내는 숲 놀이와 참가자 모두가 손을 잡고 하는 '난 대단해 게임'을 체험했으며, 실내 활동으로는 싱잉볼 소리와 함께 바닥에 누워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금학생태공원은 수려한 자연과 깨끗한 수질을 갖춘 곳에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생태습지와 다양한 수목을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갖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상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041-840-2573으로 하면 된다.



배움의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

이주영(반포면)

공주시민의 배움과 나눔이 어우러지는 '제10회 공주시 평생학습축제'가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시 행복누림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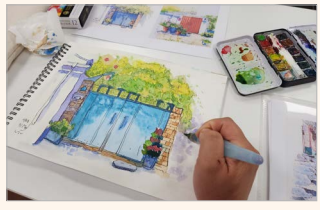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는 세대와 지역, 직업과 배경을 넘어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주의 평생학습 정신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다.

반포면 평생학습팀은 '읍면동 평생학습의 날(11월 12일)' 전시에 참여해 어반스케치, 서양화, 서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일상의 풍경과 자연을 담은 그림, 나무결 위에 새긴 글자에는 학습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예술적 감성이 깃들어 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해 온 반포면 평생학습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며 마을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공주시민의 꾸준한 참여와 반포면의 활발한 활동이 어우러져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는 진정한 평생학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회 소식

의정활동 이모저모



공주시 학교 재배치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9. 24.)



시민예술공간 흙사랑 도예가회 전시회(10. 1.)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체육특사단 및 대한 펜칵실랏연맹 임원진 내방(10. 1.)



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10. 3.)



공주시 왕도심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 시민토론회(10. 14.)



10월 의원 간담회(10. 15.)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내

일　　정 : 11. 20.(목) ~ 12. 15.(월) / 26일간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 041-840-8015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국립공주대 통합 추진,
지역 균형발전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공주시의회 의장
임달희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이 예비 선정됐고, 2028년 통합대학 출범이라는 일정까지 제시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저는 공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통합 추진에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주의 정체성과 미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대는 지난 80여년간 공주의 교육·문화·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해 왔다.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공주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이곳을 찾으며 지역 상권이 유지되었고, 교육도시로서 이미지도 함께 발전해 왔다. 지역 주민들 역시 공주대를 단순한 학교가 아닌, 공주의 상징으로 인식해 왔다. 이 소중한 상징과 기반이 두 대학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약화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학 통합이 추진될 경우, 유사 학과 통폐합과 학생들의 대전 캠퍼스 이동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현재 공주대에는 약 1만 6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절반가량의 학과가 충남대와 중복된다. 이 가운데 일부만 이전하더라도 수천명의 학생이 공주를 떠나게 되고, 이는 곧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공주시는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인구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주대 학생들은 전입지원금, 정착지원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주시 인구 유지에 기여해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관련 지원을 받은 학생만 2천명이 넘는다. 이처럼 대학 구성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주는 것 자체가 공주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어 왔다. 그런데 통합이 현실화되어 학생들의 생활권이 대전으로 이동한다면, 공주가 쌓아온 모든 지역 유지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자 인구 유지의 핵심 인프라이다. 국립대학 통합 문제는 대학 간 경쟁력 제고의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공주대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립대로서 오랜 세월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경제를 버텨온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의 기능이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외부로 이전된다면, 그것은 곧 공주시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며 저는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통합이 아니라, 공주대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을 지켜내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발전 전략이다.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주대의 비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공주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주체이다.

공주대는 공주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과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주시민의 뜻과 함께 공주대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공주의 자존심이자 교육의 중심인 공주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의회 소식

금성배수펌프장 상부 공간 활용 방안



공주시의회 의원
이용성

2024년 말 기준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629만 8천대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된 수치이기도 하며, 인구 1.9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그에 따른 민원 현장의 목소리 또한 높다. 우리 시의 교통과 업무 중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공주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은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지점의 토지주에게 매매의향서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를 해야 비로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우후죽순 들어오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통 3년 주기로 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에 맞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름 까다롭게 선정을 하여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민들께 늘 이야기하는 공정한 심의, 다수의 공익에 따른 결정 등 저희는 할말도 참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되고,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 곧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자만과 오만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며 자칫, 정치병에 걸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했었던 무령로 124번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 건이 그러했고, 결국 백여명이 넘는 인근 주민의 주차장 조성 동의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조금 더 객관성 있는 결정과 뒤따르는 희생에 대한 부분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주시에는 행정동인 웅진동 안에 법정동인 금성동이 있다. 공산성과 인접한 지역이며,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더불어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있고, 장날이면 경적소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관통하는 장소다. 그런 공주시 금성동에는 금성배수펌프장이 있다.

금성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예상지역인 산성동, 금성동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시설물이다. 여전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수지 면적 3,400㎡ 상부 공간의 추가적 활용 건에 대해서는 항상 뒤따라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영월 의원님이 요구했던 시설개선 및 개량 계획과 상부 복개 후 주차장 추진계획 여부, 복개 시 장·단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장점은 공란으로 하고, 단점만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계속되는 관련 민원에 시설물의 기능은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안배수펌프장은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부산시 또한 지자체 내의 한 배수펌프장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시 마포구의 성산유수지 상부의 공원 조성 및 34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례, 그리고 목동펌프장 상부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 등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 측면에서 조성 후에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금성배수펌프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BRT 차고지 선정과 관련하여 사라지는 알밤센터 주차장의 대안으로도 좋을 것이고, 매년 늘어나는 공산성 인근의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날이면 빼곡하게 들어서는 이용객들의 차량정체에 따른 분산 효과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모기 유충의 발원지, 늘 제기되는 악취와 경관 문제, 뻥 뚫려있는 지하구조물 같은 도심 내 기피 시설에 대해 우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재배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이범수

지난 4월 의정토론회 이후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와 우려 섞인 의견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덕분에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 논의가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다.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남아 있다. 공주교육청과 공주시가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만, 도의회 조례 개정과 학부모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전·재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니,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에 중학교 이전·재배치가 확정될 경우 공주시와 공주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 **현재 교육청은 공주중과 공주여중을 통합해 약 558명, 21개 학급 규모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공주여중 자리는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청 이전과 함께 시립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까지 검토되고 있다.**
- **공주중과 교육청 부지는 공산성에서 왕릉원,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클러스터와 맞닿아 있고, 황새바위성지와도 위치가 가까워 공주시 주관으로 대규모 관광단지의 일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외비'라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절차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육체육과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함구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된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이번 논의를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우려를 표한다. 혹시나 원도심이 텅 빌지 걱정하는 시선일 것이다. 그러나 강북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공주중, 공주여중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며, 재배치 이후의 경제적 효과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초점을 바꿔서 학교 이전 후 남게 될 제법 넓은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공주시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공주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주를 찾은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도록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원도심은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다. 공주중은 1973년, 봉황중은 1974년, 공주여중은 1979년에 지어졌다. 40~50년 된 낡은 건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강북 지역에 시설이 좋은 학교를 제대로 지어 놓으면 너도나도 그 학교로 진학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학교들도 시설 개선 경쟁에 나설 것이다. 이는 학교 재배치가 가져올 또 다른 긍정적 효과이다.

공주는 예로부터 교육도시라 불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가정이 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공주에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재배치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주중·공주여중 학부모 투표이다. 학교별로 학부모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이전·재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 의사로 간주되기에, 그 문턱을 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이기에 앞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이 똑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공주중, 공주여중 학부모가 계시다면 꼭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학교 재배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공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함께 원도심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주 도래미(道來味)

바삭, 달콤 시장 골목에서 만나는 행복한 한입

‘달달도넛’



산성시장 골목 안쪽, 노란 간판 아래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고소한 향이 퍼져 나온다.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바로 ‘달달도넛’이다. 가게 앞 진열대에는 막 튀겨낸 도넛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진다.

어릴 적 산성시장을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대표는 시장에 맛있는 빵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넛 가게를 열었다. 제과제빵을 전공한 부부와 동생이 함께 운영하는 ‘달달도넛’에서는 바삭한 찹쌀꽈배기와 팥이 듬뿍 들어간 찹쌀단팥도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링도넛과 생도넛(강낭콩 앙금), 과육이 살아 있는 리플잼 도넛, 부드러운 크림 도넛까지 무려 13가지의 다양한 도넛을 맛볼 수 있다.

‘달달도넛’의 인기 비결은 정직함에 있다. 모든 도넛은 매일 아침 손수 반죽해 당일 생산·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갓 튀겨낸 도넛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폭신해 한입 베어 물면 따뜻한 김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설탕 대신 직접 빻은 찹쌀가루를 토핑해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을 살렸으며, 팥과 잼은 당도를 낮춰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시장 특유의 정겨움도 이곳만의 매력이다. 누구에게나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작은 서비스 도넛으로 마음을 나누는 인심 덕분에 가게 앞은 늘 웃음과 대화로 가득하다. 가게에서는 도넛을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 제공하며, 음료도 직접 서빙한다. 그래서인지 연령층이 높은 단골손님은 물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 손님들도 기분 좋게 머물다 간다.

가격 또한 착하다. 대부분의 도넛이 천원대라 소소한 금액으로도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 장보는 길에 가족 간식으로 챙겨가기에 좋고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요즘에도 3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아 SNS에서는 ‘돈쭐내주고 싶은 가게’로 불리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단순한 도넛 가게를 넘어, 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정을 전하는 공간. 도넛 한 입이 전하는 기분 좋은 달콤함과 정겨운 재래시장의 풍경까지 오늘 하루는 ‘달달도넛’에서 더 특별해진다.

주　　소 산성시장1길 72
영업시간 10:00 ~ 18:00
대표메뉴 찹쌀꽈배기, 찹쌀팥도너츠, 링도넛, 크림도넛 등
문　　의 041-852-0688

충청남도 공주시
www.gongju.go.kr

11 NOVEMBER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공연



가족 뮤지컬 **<백설공주>**

일정 11. 7.(금) 10:30
11. 8.(토) 14:00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재즈 플레이 콘서트>

일정 11. 21.(금) 11:00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홍련>**

일정 11. 14.(금) 19:30
11. 15.(토) 15:00,
19:00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창극 **<맥베스 : 백가의 난>**

일정 11. 2.(일) 15:00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축제



2025년 백제금강점 바로마켓

일정 ~ 12. 28.(일)
매주 토·일 11:00~17:00
장소 금강신관공원



전시



특별전
<석기이력서_가족을 다루는 도구들>

일정 ~ 26. 2. 28.(토)
9:00~17:00/하절기 18:00까지
장소 석장리박물관 파른 손보기 기념관



<우영민> 개인전

일정 10. 28.(화) ~ 11. 3.(월)
11:00~19:00
장소 이미정갤러리



2025 공주 차세대 작가전 **<이성용>**

일정 11. 6.(목) ~ 11. 16.(일)
10:00~18:00
장소 아트센터고마 전시실

2025 공주 차세대 작가전 **<이후민>**

일정 11. 20.(목) ~ 11. 30.(일)
10:00~18:00
장소 아트센터고마 전시실



2025 공주문화예술촌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일정 11. 18.(화) ~11. 30.(일)
10:00~19:00
장소 공주문화예술촌



<2025 공주국제미술제>

일정 ~ 12. 15.(월)
9:00~18:00
장소 임립미술관



2025 공주 올해의 작가전 **<안혜경>**

일정 10. 30.(목) ~ 11. 9.(일)
10:00~18:00
장소 아트센터고마 전시실



<장진숙> 개인전

일정 11. 11.(화) ~ 11. 17.(월)
11:00~19:00
장소 이미정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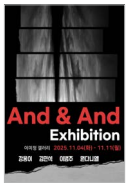
<김향은> 개인전

일정 11. 18.(화) ~ 11. 24.(월)
11:00~19:00
장소 이미정갤러리



2025 공주 올해의 작가전 **<고재선>**

일정 10. 23.(목) ~ 11. 2.(일)
10:00~18:00
장소 아트센터고마 전시실



<And & And Exhibition>

일정 11. 4.(화) ~ 11. 10.(월)
11:00~19:00
장소 이미정갤러리



2025 공주 이 시대의 사진작가전
<김광진>

일정 11. 13.(목) ~ 11. 23.(일)
10:00~18:00
장소 아트센터고마 전시실



<김영임> 개인전

일정 11. 25.(화) ~ 12. 1.(월)
11:00~19:00
장소 이미정갤러리

공주문예회관	041-852-0861	공주문화예술촌	070-4415-9123	이미정갤러리	041-854-5345
아트센터고마	041-852-9806	석장리박물관	041-840-8938	임립미술관	041-856-7749

따뜻한 기부 소식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인구정책과 041-840-8773

2025년 9월 기부금 총액
1천745만6천300원 / 139명

2025년 1~9월 기부금 총액
153,252,600원

기부자 2025년 고액기부자
김시유, 강창규, 강도묵, 권중천, 박연수, 위영수, 조철회, 이기용
※ 기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 민간플랫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 창구

기부 혜택
-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재해복구 긴급모금에 기부 시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분 33%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지역의 답례품 제공
  - 고맛나루쌀, 공주밤, 알밤한우, 공주페이 등

기금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
-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
- (지정기부) 관내 학교 야구부 지원사업, 극한호우 재해복구 긴급 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현황

복지정책과 041-840-8792

2025년 1~9월 기부금 총액
309,966,860원

2025년 9월 기부금 총액(현금, 현물)
1억1천796만8천800원 / 25건

현금 1천600만원 / 7건

㈜광선전기,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주향우회, 금학동주민자치회, 조병규, 조효원, 물사랑나눔단, 신동군

현물 1억196만8천800원 / 18건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행복담기㈜,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협력단, (사)전국한우협회 공주시지부, (사)희망을주는사람들, 애터미㈜, 이명우, 뚜레쥬르 공주신관점, 주식회사 공주포장건설,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프레시플러스주식회사 공주제1공장, 부자떡집, 주식회사서울우유세종특수, 누치공방, 비너스노래클럽, 이한응,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신관동주민자치회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기부금 현황

교육체육과 041-840-8643

2025년 1~9월 기부금
59,063,390원

2025년 9월 기부금 총액
1천814만250원 / 64건

일반 1천774만6천650원 / 19건

개인 - 나태주, 김경미, 최창원, 이용복, 이재권, 김정섭, 박상현, 이 찬, 김학도, 서견석, 김미란, 오재경, 이지영, 백옥희, 신영각

법인 - ㈜선양소주, 농업회사법인 ㈜석계, 영농조합법인 계룡산한우, 농업회사법인 ㈜하늘채

공무원
39만3천600원 / 45건

온누리공주 시민제도

온누리공주는 **공주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공주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누리공주 를 검색하세요!

온누리공주시민 특별한 혜택

마일리지 공주페이 전환 또는 고맛나루장터 사용(정회원 가입 시 5,000 마일리지 적립)

온누리공주 시민증 제시
- 입장권 할인(50%)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석장리박물관, 사계절썰매장
- 이용료 할인 고마열차 (20%), 힐스포레 대관(10%), 고마 대관(30% 20인 이상), 장안스포츠센터 대관(5% 전화예약 시)
- 숙박료 할인 공주하숙마을 숙박(20%), 힐스포레 숙박(10% 전화, 방문예약 시)
- 할인(10%) 빵꽃핀마을, 라라코스트, 조랑말, 독일보청기 멀티샵(장애인보장구 제외), 웅진광고,임립미술관, 다비치안경공주산성시장점(안경, 선글라스할인 / 행사품목제외)
- 할인(7%) 모락연화(평일 브런치, 리조또, 파스타, 피자)
- 할인(5%) 유나인버거조인트, 옥희네브런치카페, 오버패스, 힐스포레 커피&베이커리, 평소리카페, 루치아의뜰, 초코루체, 공주커피사랑채, 그루터기카페, 공산성아래, 공산성절미, 골목카페동주, 내재, 크루1959, 커피나무609, 청춘떡방, 행복한 오리, 어사또, 마린코스트카페, 콜핑, 네일 나랑노랑(젤 네일) , 장안스포츠· 배드민턴창고(공류제외), 장안전통놀이체험공방, 포차맘마미아, 우성낚시&캠핑(숙박, 캠핑), 베이커리밤마을, 홍휘관(평일), 공주공산성게스트하우스(평일), 바미한복, 니리므의상실, 메리봉봉 공산성점, 청담
- 할인(2%) 일등여행사(모두, 하나투어 스탠다드상품 이상)
- 슈퍼 할인 탑할인유통(7만원 이상 2천원), 고마스토리(1만원 당 1천원)
- 서비스 제공 우성칼국수, 새이학가든, 군자대한곱창, 명륜진사갈비, 착한낙지, 지글지글, 빙수당, 제비파스타, 보디가드예스공주3점, 메밀촌, 삼채가, 팔팔무쇠삼겹, 팔팔뒷집, 신야춘추, 새벽옛날통닭, 아미띠에(금흥동), 다비치히어링보청기(공주산성시장점), 공산성본가, 아낙네의밀가, 오리덕애, 고마나루1999, 천안당호두과자, 아이스크림에 빠진날, 산장, 족발신선생, 인물스튜디오, 까꿍돌상, 아이맘스튜디오
- 포인트 적립(2%) 과일나무

할인쿠폰 쏘카 할인 (대여요금 50% 할인 / 공주시 내 쏘카존 이용 시) - 온누리공주 쿠폰함 쿠폰번호 확인 ▸ 쏘카 내쿠폰 쿠폰번호 등록

충청남도 공주시
www.gongju.go.kr

11월 9일은 소방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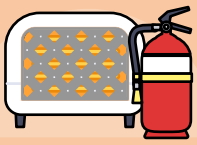
안전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습관

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생활 속 화재 예방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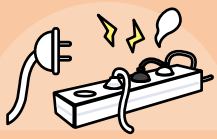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화재 예방 수칙

01 난방·전열기기 주변에 소화기 두기



02 전기제품 미 사용 시 플러그 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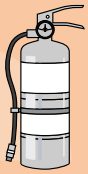


03 안전 인증(KC마크) 제품 사용하기

04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05 K급 소화기* 비치하기
※ 주방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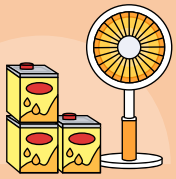
06 세탁기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해 설치하기



07 전기장판 위에 이불·매트리스 겹치지 않기



08 난방기 주변에 인화물질 두지 않기



09 전기장판은 돌돌 말아 보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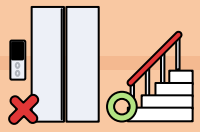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 요령



불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위에 알리거나 경보기 작동하기



젖은 손수건·옷으로 코와 입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 금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인원 확인, 119에 신고하기

소방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안전,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공주소방서는 화재나 자연재해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은 물론,
일상에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119 화재·구조·구급·재난·응급신고 112 범죄 신고 110 민원 신고

11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

– 시인 나태주 –



단풍이 물든 계룡산 신원봉에서